

날은 **홍범도장군**



21년사업·결산 보고 | 22년예산·사업계획 | 사업회 소식 | 신임이사 소개 | 재외동포는 누구인가(기고) | 독후감 공모 수상작



인사말

우원식 이사장 인사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봄의 기운이 회원님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숙원사업이자 국민적 염원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이는 홍범도 장군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광복을 이룬 조국에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승리 이후 101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당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 독립운동의 영웅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과거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았지만 강제이주당한 고려인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 공로로 이번 유해봉환에 맞춰 애국훈장의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나아가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부인 단양이씨와 장남 홍양순 선생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어 순국선열의 날에 차남 홍용환 선생에게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았습니다. 이로써 홍범도 장군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숭고한 희생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성공적인 유해봉환은 회원님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모아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유해봉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귀환 이후 후속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창설했던 <홍범도 사격대회>를 올해도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수출신 홍범도 장군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으뜸가는 사격대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무명독립용사들을 기념하는 공간 조성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장군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이사장 우원식



2022년 예산·사업계획

○ 예산안 보고

· 전년도 이월 : 1,708,634원

· 수입 (단위: 천만원)

구분	'22(예산안)	'21	'20
이사회비	55,000	47,000	39,000
CMS 회원	24,000	21,980	21,290
후원금	15,000	13,170	11,820
계	94,000	82,150	72,110

· 지출(예산안) (단위: 천만원)

구분	항목	'22(계획)	'21	'20
기존 지출 항목	운영비	15,000	9,618	14,975
	인건비	32,000	28,474	19,149
	금융수수료	1,000	956	1,155
	소식지	8,000	4,049	14,827
	보조사업	20,000	44,208	20,838
	경조사비	1,500	1,003	752
자체 사업	식대	1,500	1,456	1,063
	역사탐사대	5,000	-	-
	아카데미	6,000	-	-
계	홍보(SNS 등)	4,000	-	-
계		94,000	89,764	72,759

○ 국가 보조금

· 22년 국가 보조금: 2억2,700만원

· 22년 자부담금: 총 5,675만원(춘천시 지방보조금 2,800만원 예정)

· 보조사업 자부담: 자체 2,000만원 + 지방보조금(춘천시2,800) + 추가 후원(900)

· 시설 사업: 독립전쟁기념관, 홍상제작 별도 예산

○ 사업 보고

■ 핵심 가치

· 대중회원 확보, SNS 기반운영, 독립전쟁 의의 알리기

■ 회원 참여

· 사업회 운영 3대 원칙 중 정관에 의한 운영과 투명한 회계는 정착 나머지 '회원 참여에 의한 운영' 22년도 사업에 강화

· 실무분과위원회 운영(편집, 재정, 학술, 역사, 디아스포라, 행사1, 2: 7개 분과)

■ 22년도 보조사업 총2억 8,375만원

· 독립전쟁 관련 기념식(봉오동, 청산리 전투, 추모식): 3,000만원

· 홍범도 장군사격대회: 1억4천만원

· 학술회의: 1,375만원

· 역사탐험(봉오동 탐방): 3,000만원

· 독립전쟁 전승기념 축제: 7,000만원

○ 자체 사업

· 홍범도 아카데미, 역사와 미래 탐사대, 홍범도 장군 홍상 건립, 독립전쟁 기념공원(기념관) 건립

2021 결산·사업보고

2021년 결산보고

○ 국가 보조사업

(단위: 원)

사업명	국가보조	자부담금	합계
KBS 다큐	100,000,000	-	100,000,000
사격대회	96,000,000	24,000,000	120,000,000
기념식	39,714,400	9,928,600	49,643,000
학술회의	13,866,800	3,466,720	17,333,600
독후감공모	23,549,600	5,887,400	29,437,000
계	273,130,800	43,282,720	316,413,600



○ 수입

(단위: 원)

항목	금액
운영비	9,618,016
인건비	28,474,940
금융수수료	956,490
소식지	4,049,710
보조사업	44,208,700
경조사비	1,003,000
식대	1,456,840
계	89,767,696

○ 지출

(단위: 원)

항목	금액
이사회비	47,000,000
후원금	13,170,000
CMS후원	21,980,020
기타(이자 외)	987,462
계	83,137,482

2021년 사업보고

서훈(1)

부인 단양이씨,
장남 홍양순 건국훈장 애국장



자유시 참변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14시, 안중근 기념관



서훈(2)

홍범도 장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KBS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KBS 제 1TV 방영



순국 78주년 기념 학술회의
13시 30분, 백범 김구 기념관



제1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 창원 국제사격장
경기종목(남/여): 10m 공기소총,
공기관총

3. 1.

6. 7.

6. 28.

8. 14~18.

8. 17.

8. 26.

10. 25.

10. 29.

11. 4~7.

11. 17.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식
15시, 안중근 기념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 유해봉환 특사단(8월 14~15일)
우원식 이사장, 황기철 보훈처장, 조진웅(배우)
- 안장식(8월 18일 10시) 대전현충원 3묘역



순국 78주년 기념식 및
청산리전투 101주년 기념식
11시, 대전 현충원



유해봉환기념 소설 <나는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8.15 ~ 9.30
· 응모 자격: 중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시상식: 10월 25일 순국 78주기 추모식

서훈(3)

차남 홍용환 선생
건국훈장 애족장

기념사업회 소식 01

2022년 정기총회 개최

2022년 3월 23일(목) 18시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임원 우원식(이사장), 황원섭(부이사장), 반병률(전문위원), 홍재구, 부윤경, 김 찬, 이재호, 채예진, 송영운, 김종욱, 한종관, 김성현, 박석봉, 한동건(사무총장)

회원 오연근, 신순봉, 최원경, 정찬희 **사회** 한동건 사무총장, 기록 김현식 사무국장



한동건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국민의례, 이사장 인사말과 참석한 회원들의 인사 및 소개 후에 총회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성원은 총 256명의 회원중 19명의 참석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117명의 회원께서 위임장을 보내셨습니다. (총 256명중 136명 참석-53%로 성원 충족) 회의는 21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2년 사업계획과 예산보고(앞 페이지 참조)19명의 신임이사 선임 의결- (뒷 페이지 참조)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 소식 02

제2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올해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는 춘천에서 10월 20일부터 4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한동건 사무총장과 박석봉(제2행사 분과위원장)이사가 3월초 춘천시 체육과와

4월 6일 우원식 이사장과 김은수 사격연맹회장이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공기권총과 공기소총의 우수선수 초청 사격대회 외에 시민 참여 사격대회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소식 03

지방선거 출마자 소개



기념사업회 임원 3분이 2022년(투표일 6월 1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출마합니다.

유정배 이사가 춘천시장에 유희태 이사가 완주군수에, ❶ 서정호이사가 무주군수에 출마합니다.

기념사업회 소식 04

김진형 이사 도서 출간



前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셨던 김진형 이사가 20여 동안 만든 벤처기업정책 자료와

최근 기고문을 토대로 <벤처정책의 초심, 규제 완화와 시장 조성>을 출간하였습니다.

김진형 이사는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31회 행정고시와 25회 번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예산실, 산업자원부에서 벤처기업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애로대책단 부단장, 대통령실 중소기업 비서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 해결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2 신임이사 프로필

신임이사 소개



정우기 이사

- 연세대학교 및 동대학원 전자공학과 학사/석사/박사
- 前)한국전자통신연구원/SK텔레콤/신세기통신/LG 유플러스 기술전략팀 부장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모바일IT스쿨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홍범도기념사업회 신임이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정우기입니다.

격동의 세월인 1980년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과학기술협의회 등에서 활동한 10여년을 제외하면 직장 학교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20여년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우연한 기회에 몇몇 선배 이사님들의 추천으로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 퍼런 유신시대에 중학교 선생님이로부터 듣고 존경하는 평민출신의 독립군 대장 그리고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꿈을 이루고자 하셨던 홍범도 장군님의 뜻을 기리는 사업에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엄윤상 이사

-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자문위원
-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체육회 이사
-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 경인방송 '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진행자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전승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김용봉 이사

- 前)개인신용평가회사 창립멤버 부사장
- 매경빅데이터학회 지도교수

한종관 前이사장님으로부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성격을 듣고 선포 참여하였습니다. 난국의 위기는 일정기간 마다 되풀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였구요. 국민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과 실천이 홍범도 장군의 정신이라 마음 새깁니다.

○ 2022년 정기총회 선임 이사

위촉일	이름
2021. 10. 06.	서정호 무주살림연구소 대표이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손영훈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전무
	송영운 더스페이스(주) 대표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김종욱 한 살림펀딩(주) 대표이사
	유희태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회장

2022년 정기총회에서
19명을 신임이사로 선임의결하였으며
총회에 참석하신 송영운, 김종욱, 한종관, 김성현
4분의 이사께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위촉일	이름
2022. 01. 06.	한종관 서울시립대 교수
	위평량 前)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
	이상욱 前)국회의원(13대)
	김용봉 한국빅데이터학회 지도교수
	오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
	임의택 前)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홍용의 (주)평화메탈 대표이사
	김성현 SM그룹 전무
	최창석 경영혁신연구원장
	박준수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센터장
2022. 02. 09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이행란 애지모 대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재외동포는 누구인가?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편집자 주 기념사업회에서는 7개의 분과위원회 중 ‘디아스포라’ 분과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동포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채예진 이사(대한고려인협회 부이사장)님의 요청으로 게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가 간의 경계가 다시금 높아졌고, 국민 대 비국민의 경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마스크 구매와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국민을 경계로 하는 배제가 작동하며 국민-영주권자, 결혼 이민자-외국인 체류자로 서열화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공식화해버렸다. 심지어 국내체류 재외국민까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한 지자체도 있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 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1997년 김대중정부는 미주동포들의 요구인 교민청 설치와 이중국적, 투표권 요구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를 국내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혈통주의 동포정책을 외교부가 반대하며 교민청은 백지화되었고, 대폭 축소된 재외동포재단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이중국적 요구는 내용상 이중국적에 해당하는 출입국 및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IMF구제금융 지원을 받던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의 부동산, 외환거래 등 투자유치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수립이전 동포들 배제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고 나서야 정부수립이전 동포들도 포함되었다.

재외동포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나간 동포들에 대해서도 배제를 했던 외교부와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역사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였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동포들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등 국가가 국민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성된 동포들이고,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정책에서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목적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재외동포재단법 제 1조) 그리고 법 개정까지 해야 했던 재외동포법은 동포들의 경제적 측면(노동시장, 모국투자 등)을 고려한 조치였고 체류자격을 동포별로 차별하여 여전히 동등한 동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중국,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 실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냉전시대하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적에 따른 배제와 포섭의 정책은 냉전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화’가 화두가 되었지만, 정작 동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계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들 역시 국민을 중심으로한 인식은 뿌리깊게 내제화 되었고, 이는 외국 국적 동포를 같은 공동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근거 없는 외국인 혐오 같은 고정관념들도 재외동포들에 대한 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의 해체는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주의권 동포 3백만여명이 우리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했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을 포함하여 재외동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한동포’의 증가와 정주화로 국내외 동포들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때이다. 현지화를 위주로는 재외동포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동포정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가의 의무로 한국이 저개발국가에 대해 지원하는 해외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7백억원에 불과하다. 역사적 희생의 산물인 해외 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과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재외동포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야 할지를 계획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기본법 제정은 재외 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을 통

해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으로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현안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것이다. 기본법에는 법의 목적, 재외동포와 재외 동포정책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본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기본법”은 특성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말하기 어렵다. 세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법(母法)으로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재외동포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법률제정과 정책 수립에서 기본법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는 법적 틀을 갖추면서 그동안 현안으로 떠올랐던 동포사회의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다. 국내체류 동포들 중 동포간 차별적인 제도로 지적되었던 ‘방문취업 비자’폐지와 ‘재외동포비자’로 단일화하든지,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최근 외교부는 입장을 바뀌어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외교부나 법무부 등 그동안 정부 부처의 행태에서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의 동포들을 법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농성장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했던 중국 동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기념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학부 서예나, 중등부 윤채원 학생의 독후감입니다.

진정한 대한독립을 위하여

최우수상 / 서예나(대학부)

喜 “허름한 두루마기를 입고 서서 이쪽을 쳐다보는 사내. 틀림없는 그다.”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홍범도 장군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꿈에서 아내를 그리며 눈물짓는 사내가 새삼 낯설었다. 그토록 무섭고 힘든 독립운동을 평생 주도한 인물이니 당연히 감정적으로 무뎠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옥영을 그리는 부분마다 그녀를 향한 절절한 애정이 느껴졌다. 서로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이 혹여나 엇갈릴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마침내 두 사람이 끌어안던 순간에는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 회색빛 의병활동을 비춰주기를 기원했다.

怒 “어떻게 죽더라도 호좌의진 지휘부 양반님들을 위해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독립운동사를 배울 때마다 들었던 의문이 있다. 바로 ‘독립운동단체들은 대체 왜 통합을 못했을까?’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이전까지는 의병이라면 모두 조국독립이라는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의지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 의병 세계에서도 신분제가 중시됐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분노가 치밀었던 대사는 “어제 해질녘에 김백선의 참수형을 실행했다”였다. 어찌나 어이가 없고 분하던지 책을 덮고 인터넷으로 실제 역사적 사실을 검색해봤을 정도였다. 신분제가 철폐된 시대에 양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귀한 전투인력을 참수하다니.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조국은 고작 그런 이유로 그를 죽였다. 일본군에 맞서 싸웠지만 정작 동지에게 죽임을 당한, 이보다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홍범도 장군의 허탈감을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이후에 만난 북로군정서의 태도 역시 호좌의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홍범도 부대의 성과가 아닌 신분으로 그들을 평가하며 무시했다. 너무나 답답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홍범도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연합작전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귀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지위보다 오직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치밀한 전략과 우수한 전력으로 부대를 승리로 이끌었다. 만약 그를 중심으로 독립군이 집결했다면 우리의 독립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한 아쉬움과 답답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哀 “애길 듣는 동안 눈앞이 캄캄해진 여친은 애기를 다 듣지 못하고 기절해 넘어갔다. 스스로는 기절한 것도 몰랐다.” 가족들과의 재회는 기적 같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에게 옥영은 삶의 전부였다. 아내와 아들이 헌병대에 잡혀갔을 때 그들을 구하러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홍범도와 그런 그를 이해하고 침묵을 택하는 옥영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이런 점까지 천생연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의 행복을 바랐지만 현실은 아프기만 했다. 게다가 옥영과 용범은 홍범도 장군 못지않은 기개를 지닌 의병이었다. 이렇게 가까운 인물들을 일제에 의해 잃었다는 사실이 분했다. 탁월한 게릴라전으로 일군을 소탕하는 홍범도 부대의 성과에 가려져 있던 우리 역사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다. 이후 독립운동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일제에 대항하는 그의 모습이 후손으로서는 감사했지만, 인간으로서는 너무 안쓰럽고 죄송했다.

樂 “운명이라는 듯,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듯 온 골짜기에 총성이 쏟아진다.”

봉오동전투는 독립군부대의 유일무이한 연합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의 죽음, 일군의 끝없는 악행, 동료의 배신 등으로 지속되던 우울한 분위기를 한 번 끊어주는 사건이었다. 홍범도는 초기부터 독립단체들의 연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각자 생각, 정파, 가치관 등이 다른 단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3.1운동이 계기가 되어 몇몇 단체들이 겨우 연합하여 치른 것이 봉오동 전투다. 이전에는 그저 대승을 거둔 전투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합을 위한 그의 열망과 노력을 알고 나니 이 전투가 얼마나 소중한 값진 승리인지 깨닫게 되었다. 특히 퇴각하는 일군과 지원군이 서로를 공격하는 부분은 통쾌하기까지 했다. 이런 전투가 이후에도 이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이때뿐이었다는 것이 아쉽다. 독립운동은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홍범도 장군만 봐도 용기와 비상한 머리, 천재성을 지닌, 마치 의병이라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 같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삶을 따라가며 그와 함께 싸운 동료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평범한 삶을 버리고 목숨을 내던지며 싸웠다. 이들을 보며 독립운동은 각자 마음속에 숨어있는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던 영화 ‘봉오동 전투’의 대사가 귀에 맴돌았다. 그동안 이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참이나 마음이 먹먹했다. 세상을 바꾼 것은 이들 한 명, 한 명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 독립을 외치는 홍범도 장군과 의병들의 외침을 끝으로 책을 덮었다.

독립된 지 벌써 76년,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떠하던가.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청산은 흐지부지되었다. 홍범도 장군이 계신 현충원에는 친일파들도 있다. 한평생 일제와 그 부역자들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사후에도 적과 동침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홍범도 장군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나라를 제대로 지켜냈다고 할 수 있을까? 돌아오신 홍범도 장군과 앞으로 돌아오실 독립운동가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대한독립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한이 완전히 독립하는 그 날까지 홍범도 장군의 삶과 그 속에 녹아있는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이다.

교과서를 너머

최우수상 / 윤채원(중등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윤채원 학생 아버님



‘홍범도’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는 많지 않다. 독립 운동가, 일제 강점기,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전. 우리는 홍범도라는 인물을 교과서로 배웠다.역사 교과서를 펼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봉오동 전투에 대한 내용이 두세 줄 정도가 나온다. 그 안에는 전투의 과정과 내용만 들어있을 뿐, 홍범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홍범도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 더욱이 부끄러운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 전의 시절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가 홍범도를 알고 있기에 일제 강점기 전 홍범도는 꽤나 신선한 느낌이다. 책 속에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 홍범도의 과거, 독립 운동을 하게 된 계기,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시련.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문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 홍범도가 튀어나온다. 그는 이야기 속에서 숨쉬고 말하고 울고 웃으며 자신을 전한다. 홍범도라는 사람이 전하는 감정과 고민을 어렵잖아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립 운동가라고 하면 ‘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악’인 일제에 맞서 싸운 ‘선’한 독립 운동가. 그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힘들었잖아’라는 말로 덮고 넘어갈 때가 많다.

잘못된 점을 찾기 보다는 자랑스러워할 성공이나 노력을 보는 것이다. 물론 좋은 부분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내 편이라고 여겨진 사람은 단점보다는 장점만을 찾아내고 싶은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장점만을 찾다보니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선’의 틀에 갇혀 있었다.

소설 속에서는 독립 운동 단체의 부족한 점 또한 세세하게 드러난다. 전근대적인 사상, 공로를 못본 척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가려놓았던 부분을 볼 수 있다. <나는 홍범도>를 읽으며 나는 나 또한 선조들의 과오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신분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양반과 상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일제를 물리치자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에서부터 균열을 내는 이들에 대한 충격이었고, 일종의 배신감이었다. ‘네가 뭘 알아’라고 물을 수도 있다. 같은 시대에 살아본 것도 아니지 않냐며 따질 수도 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사는 ‘나의 배신감’이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과거, 자유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는 여기서 ‘나’로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이름 모를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나’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동시대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읽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유산 중 하나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홍범도’를 생각하면 교과서 속 엄숙한 얼굴의 남자가 떠올랐다. 색을 알 수 없는 군복을 입은 채,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한 인물. 존경할 위인이지만 나와 그 사이의 거리는 잼 수 없을 만큼 길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나와 분리해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홍범도>는 내게 새로운 사람을 안겨주었다. 그는 웃을 줄도, 울 줄도 알며 때로는 사진 속 남자처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승리의 위인’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상처와 눈물도 보일 줄 안다.

지난 날의, ‘아는 척’하는 내 모습은 부끄럼이 많다. 손마디 하나만큼을 보고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반성할 점이고 하나의 부끄러움이다. 하지만 <나는 홍범도>를 읽으며 모르고 있었던 부끄럼을 알았고 홍범도라는 하나의 사람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미숙했던 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고 역사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발행인 | 우원식

편집인 | 홍순계

편집위원장 | 김용환

편집위원 | 박석봉, 정광균, 김우진, 한동건, 김현식, 김유림

발행처 |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

TEL | 02)784-3601

FAX | 02)6788-6790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

비매품

· 보내 주신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임원 연회비 납부현황 (납부일 순, 3월 31일 기준)

문홍선 박준수 이경철 김용봉 최창석 홍용의 김성현 홍성중
홍이표 이행란 부윤경 채예진 김우진 박석봉

임원명단

이 사 장 | 우원식(국회의원)
명예 이사장 | 이종찬(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 이 사 장 | 황형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 사 사 | 박형상(변호사/前 서울중구청장)
상 임 이 사 | 홍순계(前 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 무 총 장 | 한동건(썬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CMS 회원 회비 입금현황 (가나다 순, 3월 31일 기준)

강도연 강미혜 강석령 강지연 강태영 계민경, 고희은 구자룡 권석중 권영희
권재석 김거성 김경애 김관표 김다영 김대영 김대환 김도식 김미선A 김미선B
김미자 김민경 김사엽 김석진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신애
김양미 김영순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윤미 김재현 김정식 김중철 김준수
김창관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김한희 김현수 나명현 나홍섭
노두섭 노용기 맹진규 문삼영 민기식 민병훈 박국진 박기수 박기호A 박기호B
박미혜 박상철 박선원 박성복 박은용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방은정 배영실 배효연 백장현 서 민 서양원 석진경 석혜경 설정선 손여록
송국영 송정화 신동혁 신순봉 신승관 신완철 안선중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양달막 양민숙 양시모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유정은
윤여각 윤진희 이기환 이대호 이명수 이병국 이병룡 이상걸 이상진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원정 이윤희 이윤기 이은영 이정원
이정화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종달 이지연 이진선 이 진 이태준 이태훈
이행란 이현주 이형철 임현문 장승희 장영진 장현우 전광출 전부선 전중선
전형범 전홍기 정기일 정동준 정두영 정병호 정성관 정용운 정윤미 정인택
정준수 정지국 정찬희 정현석 제성수 제옥평 조국환 조봉현 조영욱 조현재
지애숙 지영순 지예은 지현주 채인묵 천상영 최성우 최재호 최향수 하기호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광기 홍영만 홍전표 홍정희 홍진표, 홍희령 황덕순
황종섭 황희연 JIN CHUNXING (사)한국마트협회 (주)비티에스웨스턴

이사

강호형 (주)KC COTTRELL 감사
김경호 대구광역시자문대사/前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김수송 (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양진 BC카드 상임이사
김우진 K잡스 대표이사
김용환 前 한남대 부총장
김준묵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진형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 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태원 NH 증권 부사장
김현권 前 국회의원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형상 조이 세무회계 대표
남인순 국회의원
노정래 (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류병균 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균 한국노총부위원장
박드미트리 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박석봉 前 육사 교수부장

정보현 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정수진 하나카드 자문위원 / 前 하나카드 대표이사
박완주 국회의원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서경석 현대건설 부사장
석순용 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광춘 건축업
손양호 前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 후원회장
안태호 한국전기감리협의회 부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위성곤 국회의원
유 용 서울시 의원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 노원구 의회 의장
이명식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명우 평안남도 지사
이미자 前 종로구 의원
이승종 네무스텍 대표
이재호 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임태성 (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 (주)미르나인 대표
정내하 (주)미네랄하우스대표
제종길 (사)도시·인·숲 이사장 / 17대 국회의원
조승문 킨텍스 부사장
조태수 (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채예진 대한고려인협회 부이사장
최 윤 E3플랜비 대표이사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승관 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한왕기 제40대 평창군수
홍성덕 前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홍성중 남양홍씨 남양군파대중종회 회장/토금산업 회장
홍의락 前 국회의원
홍이표 하이리빙 대표
홍재구 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종표 강동수산 대표이사

신임이사

서정호 무주살림연구소 대표이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손영훈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전무
송영운 더스페이스(주) 대표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김종욱 한살림퍼넌트(주) 대표이사
유희태 일문구의사선양사업회 회장

한종관 서울시립대학교수
위평량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
이상옥 前 국회의원13대
김용봉 한국빅데이터학회 지도교수
오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
임의택 前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홍용의 (주)평화메탈 대표이사

김성현 SM그룹 전무
최창석 경영혁신연구원장
박준수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센터장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이행란 애지모 대표